

장례비·육내장 보장 펫 보험 틈새 노려라

펫보험 후발주자 상품 경쟁 치열

반려동물 800만 가입률 1%대 그쳐 손보사 블루오션 부상 차별화 나서 KB손보 업계 첫 장례비 지원 특약 DB손보 피부·치과질환 보장 확대

손해보험사들이 미래 성장성이 큰 펫 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까지 등장하며 펫보험 후발주자들의 상품 경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가 넘는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펫 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입·통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개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3만9021건이다. 이는 지난해 신계약 건수(5만8456건)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올해 전체 신계약 건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펫보험 강자인 메리츠화재 외에도 KB손해보험 등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려동물 특화 보장을 신설하고 상품을 개성하며 펫보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어진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 특약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수술비는 하루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반려동물물을 기르면서 치료비 부담이 큰 슬관절·고관절 탈구, MRI·CT 촬영, 치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보장을 가능토록 해 고객의 선택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고객이 부담한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장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노령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녹내장 수술비'와 '특정 재활치료 보장'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으며, 강아지의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하는 약물 치료를 보장하는 '특정 약물치료 보장'도 추가했다.

펫보험 시장에서 메리츠화재를 맹추격 중인 DB손해보험도 지난 6월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질환 보장을 넓혔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인 피부질환, 치과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8월에는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영업익 1조 유력 이통3사... 4분기도 믿을건 'AI'

합산

통신사업 정세에도 신사업 약진 SKT 개인형 AI 비서 연내 출시 KT MS와 클라우드 분야 파트너십 LGU+ 이달 AI서비스 '익시오' 선포

올해 3분기에도 이통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익 1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주 사업인 통신 부문의 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사업의 약진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익은 SK텔레콤 5251억원, KT 4549억원, LG유플러스 2543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SKT는 5.4%, KT는 41.3% 증가하고 LG유플러스는 0.8% 감소할 전망이다. KT의 경우 임금협상비용이 직전 분기에 반

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통신 부문의 정세는 5G 가입자 순증세가 둔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공개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3434만 5327명으로 전월 대비 26만 504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중인 해외여행 이용자로 인해 로밍 매출이 증가하면서 통신 매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통 3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사업 역시 3분기 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AI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 진출한 SKT의 경우 AI서비스 '에이닷'이 8월 말 기준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성공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및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AI 컨택센터(AICC) 및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수요가 증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이통 3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인프라 부문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추세다.

4분기도 이통 3사의 AI·신사업 키우기 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SKT는 에이닷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글로벌 PAA(개인형 AI 비서)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클라우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KT는 향후 5년간 2조 4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누적 최대 4조 6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체 통신 내재화 모델 '익시젠'을 적용한 AI서비스 '익시오'를 10월 내 출시해 AI B2C 시장 공략에 나선다. 박준영 기자 pij60@viva100.com



한강 열풍... 주말에도 서점 북적

주말인 13일 오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영업시장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책을 사려고 서점에 왔다. 연합뉴스

배민 "음식 값 먼저 내려야" vs 점주 "상환율 5% 제한"

배달앱 수수료율 이번엔 합의할까

배달앱 상생협의체 오늘 7차 회의 정부 "이달 말까지 양측 합의의 주력"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 2위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 상생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앞서 8월 진행된 6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도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오는 14일 열리는 7차 회의에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업계 1위 배민의 경우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는 매출 상위 60~80%에는 수수료 4.9~6.8%를, 상위 80~100%에는 각각 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위 60~80% 대상의 중개 수수료율에 '음식값 할인' 조건이 달리자, 점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배민의 안에 따르면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낸다. 하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 결국 400원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입점업체 측은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손님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배민 상생안을 거부하고, 수수료율 상환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수수료율 상환 5%를 제안한 바 있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마감시까지까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권고안 혹은 입법으로 직접적인 규율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이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환제와 우대수수료 도입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간신》3부작! 〈간신론〉〈간신전〉〈간신학〉

"배운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가장 치욕이다." - 공자진(龔自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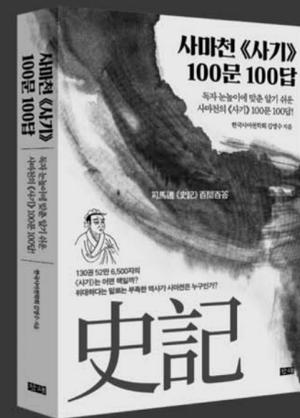


간신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길러지는 존재다!

우리 안의 간신 '내간(內奸)'을 없애야 내 조직과 국가가 산다.

현명한 리더는 역사책에서 답을 찾는다.

독자 눈높이 맞춘 알기 쉬운 사마천 《사기》



사마천 《사기》 100문 100답

130권 52만 6,500자의 《사기》는 어떤 책일까? - 위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역사가 사마천은 누구인가?